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 제42-0006181호)

새만금 지평선소식

10월호

지평선
JIPYONGSUN

TEL. 063-547-1707 www.jpsmall.com

청정목토 김제, 농특산물 쇼핑은 지평선몰에서!

제257호

2016년 10월 10일(월)

발행인 김제시장

(우)54386 김제시 중앙로 40

홈페이지 www.gimje.go.kr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장면



지·면·안·내

새만금지평선소식은 김제시에서 시민과 출향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정 소식지입니다. 구독신청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063)540-3221

- 1면 김제지평선축제! 영원하라~
- 2면 시정소식
- 3면 축제성과
- 4면 축제 이모저모

- 5면 읍면동 소식
- 6면 시민 참여마당
- 7면 행복 김제! 문화·정보마당
- 8면 주요 의정소식

김제시청 대표전화번호

063)540-3114

시민과 소통하는 김제시청이 되겠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 "2016 대한민국 혁신 기업인 대상" 수상 영예!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자치혁신경영 인정받아~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한 '2016년 대한민국 혁신 기업인 대상 수상식'에서 '공유가치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번 수상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혁신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을 심사하였고, 전국 유일의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인 이건식 김제시장의 자치 혁신 경영으로 김제 백년 대계를 일궈낸 과업들이 인정을 받았다.

<주요 공적으로는>

▲ '지평선(horizon)'이라는 무형의 아이덴티티를 축제를 통해 재창출하였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공히 '소득을 창출하는 마케팅 축제', '차별화된 체험축제'로 인정받으며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는 9.29~10.3일 5일간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도전하였다.

▲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10.5km)을 101년만에 김제 관할로 다시 찾고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동북아로 향하는 미래해양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2011년에 유치한 전국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금보다 비싼 종자' 연구개발과 대한민국의 종자주권 회복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종자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받음



으로써 20개 입주 종자기업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게 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 298만㎡(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도시 인프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전국 최초의 특장차전문 백구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17개기업의 투자 협약으로 70% 분양이 확정되는 등 신산업을 주도할 투자유치기반이 완성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2007년에 설립한 김제시랑장학재단은 장학기금 290억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고액을 조성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농촌형 교육정책의 수범모델로 만들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김제시 위상 널리 알리는데 기여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6명을 올해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2016년도 김제시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는 오종남 위원장 외에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용우, 민형기 (유)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공영철 (전)제105보병연대 3대대장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김제시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7일 김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결정하게 되었다.

김제시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오종남 민간위원장은 벽골제 개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새만금위원회의 활성화로 새만금 투자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방조제 준공,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조속 추진한 공로가, 이용우, 민형기 변호사는 새만금 2호방조제를 김제 관할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가, 이양재 교수는 새만금 김제 둘 찾기의 기본 논리개발 용역을 완수한 공로가, 공영철 (전) 3대대장은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적극적인 대민 유대 강화활동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9월 29일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직접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다.

또한 지난 7월 8일 임상준 (전) 김제경찰서장에게는 치안활동의 공로와 타 지역에 부임하여서도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이임식에 맞추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김제시는 시정발전의 공로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호협력도시의 장과 시에 부임하는 주요 기관장 및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수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운명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 전에 수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였다.

◆ 수여대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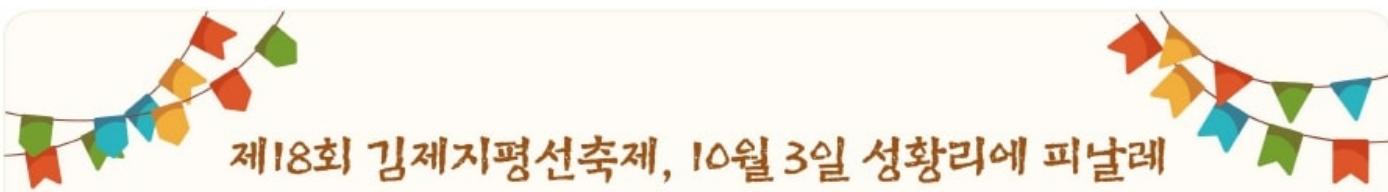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용우 법무법인(유)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민형기 법무법인(유)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이양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영철 (전)제105보병연대 3대대장
------------------------	----------------	------------------------------	------------------------------	--------------------------	----------------------------

김제시 새만금의 날 지정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군산 군도와 새만금 지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1914년 3월 1일)에 의해 빼앗긴 새만금 지역 일부를 우리시 관할 구역으로 되찾음으로써 내륙 도시로 전락할 절체절명 위기에서 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이 결정을 김제시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새만금의 모태(어원)는 김제에 있으므로 새만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김제시 기념일로 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 만경평야의 "만" + 김제평야의 "금" + 새롭게 확장한다의 "새"
- 국가의 새만금의 날 제정은 찬성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시는 김제시를 앞에 물인 "김제시 새만금의 날"로 지역에 한정한다는 입장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인근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 부안군이 제일 먼저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업무협약 등록하였고 3·4호 방조제 행정구역결정 전에 군산시는 인근시군, 도가 반대함에도 시내 버스 강행, 금년에 오식초를 새만금초로 변경하였으나 우리시는 새만금 명칭 사용 반대가 아닌 앞에 지역체 명을 붙여 사용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제시는 37km였던 해안선을 겨우 10.5km(군산 276, 부안 173) 찾았는데 김제시 연안관리계획 반영을 반대하며 김제 어항건설 등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새만금 앞바다와 신항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군산과 부안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행정자치부의 결정과 2016. 6. 16일 2호 방조제 김제시 지적등록에 따라 행정절차 및 자치사무 처리가 법적 으로 가능하고 이미 2013. 11. 14일에 대법원에서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김제시는 막혔던 바닷길을 열고 시민의 행복과 김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새만금 김제 둘을 반드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10월 3일 성황리에 피날레

벽골제 쌍룡, 축제의 랜드마크로 재탄생, “농악”으로 폐막주제공연 장식



지난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벽골제를 비롯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속의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간 펼쳐진 올해 축제는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시기로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을 아심차게 준비하여 5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우선, 2년 연속 열린 벽골제 쌍룡 조형물에서의 개·폐막행사를 통해 벽골제 쌍룡이 지평선의 고장 김제와 지평선축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한국스러운 축제로 세계를 향한 축제 한류 연출을 위해 준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연계한 대규모 이슈이벤트’,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백제문화축제상품’, ‘국제친선클럽,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팸투어’,와 함께 UN에서 ‘3년 연속 농업 관련의 해’ 선정에 따른 종자홍보 체험관 등 운영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농업의 중요성을 알릴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제지평선축제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와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벽골제 쌍룡 횃불 퍼레이드」는 알찬 구성으로 한껏 업그레이드되어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을 연출하였으며, 전통농경 문화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도롱이 워터터널’, ‘대동 연날리기’, ‘벼베기 농촌체험’, ‘지평선 농촌풍경 그리기 대회’,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지평선 목장 나들이」 등도 축제를 통한 향수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김제지평선축제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농촌마을 체험과 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에서의 하루’, ‘지평선팜스테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 위주의 ‘징계쟁이 전시·체험관’,과 ‘생태놀이 체험장’,이 축제 기간 내내 상시 운영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마련한 수상마당의 프로그램 확대와 주·야간 상시적 운영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이 확대 운영되었으며, 공간별 주제에 맞는 디스플레이 연출과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의 수시 운영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벽골제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농경사주제관의 외벽에 농경문화 이미지를 삽입

하였으며, 주제관 옆 농지에는 유색벼를 활용한 대지아트를 조성하였다.

여기에 더해, 축제장 곳곳에 대형으로 짚 조형물과 윈드배너,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와, ‘김제 벽골제 야행(夜行)’,이라는 주제로 야경(夜景), 야사(夜史), 야화(夜華), 야로(夜路)의 4가지 불거리를 마련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축제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금년에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예년과 달라진 편의시설 확충 등 축제 인프라 개선이 눈에 띄었다.

관광객들의 축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축제 홈페이지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신설하였으며, 축제 스마트폰 앱 보완과 퓨전 마당놀이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신관사도전’」연출을 통해 짚은총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우천시를 대비하여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실내체육관, 농경사주제관을 활용한 우천 대비책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10만 김제시민과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김제지평선 축제를 통해 김제를 알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김제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제지평선축제, 지역문화유산과 전통농경문화를 축제로 접목하다.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등 Killer Contents로 구성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온 전통농경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기본 컨셉이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지역문화 유산의 재구성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으로 접목하고, 김제지역 고유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비경 '지평선'을 테마로 하여 김제시민과 관광객 참여를 골격으로 하여 현재

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김제지평선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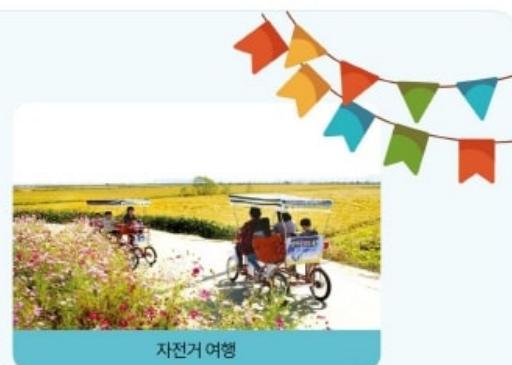
올해에도 전통농경문화와 지역문화유산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접목한 최고의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메뚜기잡기 체험



연만들기 체험



자전거 여행



우마차 여행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지역문화유산의 재구성



농악

잊혀져 가는 지역문화유산의 전승방식으로 축제 프로그램 접목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와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는 잊혀져 가는 김제지역 설화와 지방민속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프로그램으로, 금년은 Killer Contents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진행되었다.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는 매년 경월 대보름에 지역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7호인 김제시 입석마을의 선돌에서 행해진 민속놀이로 남자와 여자가 대결하여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전설에서 기원해 프로그램화 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악단 신명놀이와 관광객 무동 태우기 등을 통해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였다.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는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0호로 벽골제를 지키고 풍년과 인간 화합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던 단야낭자의 정신을 기리는 민속놀이로 백룡과 청룡의 대결구도와 관객몰이를 위한 용기놀이,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동 퍼포먼스가 장관을 이뤘다.

축제를 통해 다시 태어난 전통농경문화, 향수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

김제지평선축제는 여느 축제와는 달리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매력이 충분한 축제이다.

어른세대의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는 시골의 향수를 자녀, 손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로 재구성한 프로그램들이 김제지평선축제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도롱이 워터터널」, 「대동 연날리기」, 「벼베기 농촌체험」, 「지평선 농촌풍경 그리기 대회」, 「지평선 허수아비 퍼포먼스」, 「조선으로 떠나는 신관사또전」, 「황금 들녘 달구지 여행」, 「지평선 목장 나들이」 등 즐길 거리로는 하루가 턱없이 부족하다.

가을밤의 잊지 못할 추억, 벽골제 쌍룡무대에서 피날레 장식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폐막행사에서는 폐막주제공연(「농자천하두레놀이」)을 시작으로 국악인 오정해의 대동 한마당이 펼쳐진 후, 지평선 판타지쇼와 관광객 모두의 영원을 담은 풍등 날리기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동네 소식



만경읍 농촌지도자회 농촌진흥청 견학

만경읍 농촌지도자회(회장 이보석)는 지난 9월23일 회원 50명과 함께 지난해 1차 견학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 설레는 마음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올해에도 풍년이 예상되어 쌀값하락이 예상되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농법 및 베이외의 작물을 어떻게 선정해서 재배하여야 되는지를 이번 견학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굳은 심경으로 출발하였다.

견학일정은 국립식량과학원 홍보관을 시작으로 농업과학관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보관, 국립농업과학원 홍보관, 국립축산과학원 홍보관 등을 둘러보았다.

회원들의 관심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작물 선정, 재배기술 및 단순 식용으로 길러지는 축산분야에서 유전형질을 변화시킨 돼지를 사육하여 사람에게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 등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백구면

서귀포 중앙동 상생 맞손 재확인

서귀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20명 백구면민의 날 행사 방문
- 상호 우호관계 재확인-

백구면민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귀한 손님이 방문하여 2015년에 갑았던 서로의 상생협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가졌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원장 송동연) 20명이 백구면민의 날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다.

이날 행사에 다채로운 이벤트가 있었는데 백구면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상호우의를 다지며 지난해에 갑았던 손을 더 굳건히 하였다.

이날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특산물인 굽박스를 선물로 가져오고,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장 특산물인 쌀을 선물로 준비하여 이날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요촌동

사각지대 밭굴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거듭나다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올해 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됨에 따라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외 계층 밭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요촌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밭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요촌동주민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가 어렵다며 죽고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건강보험료 20개월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가 되었으며 노모를 모시고 일용으로 일을 하고 있어 큰돈을 구할 수 없어 도움의 손길을 동주민센터에 요청한 것이다. 맞춤형복지팀은 위기에 빠진 가정에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지원하여 자칫 절망에 빠질뻔 했던 가정에 다시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해 뿌듯한 사례로 꼽고 있다.



금산면

금산모악예술단, 금산면에 풍악을 울린다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모악예술단(단장 박미성)이 9월 24일 오후 1시 금산면 회평마을에서 ‘재능기부 공연한마당’을 펼쳤다.

모악예술단은 금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단타교실로 시작하여 난타, 풍물을 비롯한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등 다방면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 왔다.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국악인 김덕수의 제자 박문기 강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심도 깊은 예술적 소양을 쌓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소외지역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위해 모악예술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기존에도 금산면민의 날 행사, 원평집강소 공연을 비롯한 10여개

마을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열어 면 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함께 나서야 희망이 생깁니다 ! -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한)은 지난 5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으로 교월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민정 팀장과 오마이티쳐 김석 대표이사가 강사로 참석하여 교육소개 및 마음열기, 주민공동체 이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등의 주제로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지원 밭굴 등의 방법을 모색했다.

지역특화사업은 퍼실리테이션(주민참여 촉진능력강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위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경로당을 활용한 ‘드개질 사업’과 ‘서로서로 염색해주기 사업’이 채택되어 9월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마당

홍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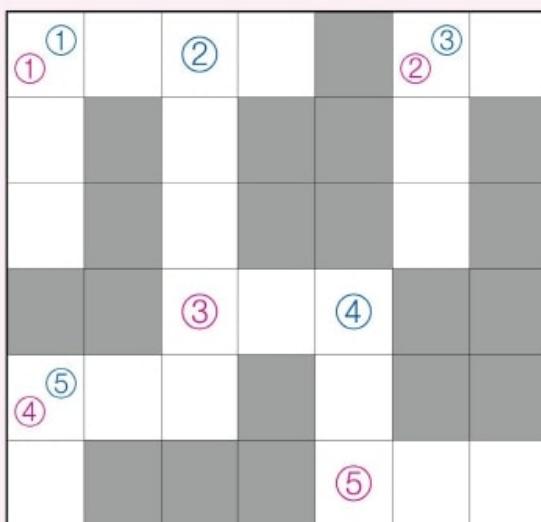
강은례
(한국문인협회 회원)

나목裸木의 불은 심장이 되어
'말랑말랑' 익은 그리움
석양의 노을로 등불 켜고
모두 떠난 빈 둑지 지켜가며
까치가 쪼아가는 외로움의 고통 참아가는
기다림의 두안길에 선
내 어머니 같은
마음이여!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지평이 날말퍼즐



● 응모요령 날말맞추기 정답을 우편엽서에 오려 붙여 10월 24일까지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소식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자 : 김민주(검산동), 김영훈(신풍동)



曾子曰 以能으로 問於不能하며 以多로 問於寡하며 有若無하며 實若虛하며
증자왈 이능 문어불능 이다 문어과 유약무 실악하

犯而不校를 昔者에 吾友嘗從事於斯矣러니라.
범이불교 석자 오우상종사어사의

증자 말하기를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으며, 많으면서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나 없는 것 같아하며, 가득하나 빈 것 같이 여기며, 잘못을 범하여도 따지지 않는 것을 옛적에 내 빚이 일찍이 이 일에 종사하였다.

論語 泰伯篇
논어 태백편

曾-일찍 증, 以-써 이, 能-능할 능, 問-물을 문, 於-어조사 어, 不-아니 불, 多-많을 다, 寡-적을 과, 有-있을 유, 若-같을 약, 無-없을 무, 實-가득할 실, 虛-빌 허, 犯-범할 범, 而-말이를 이, 校-헤아릴 고, 昔-옛 석, 者-놈 자, 吾-나 오, 友-벗 우, 嘗-일찍 상, 從-좇을 종, 事-일 사, 斯-이 사

이 이야기는 증자가 친구인 안연을 일컬어 말한 것이다. 안연은 의리의 무궁함을 깨달아 스스로는 능하고 많이 알았지만 스스로 능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물었으며, 깨달음이 있었지만 스스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하더라도 안연은 탓하지 않았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친구인 증자가 아름답게 여겨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김조영 (학성강당에서 수학 中)

(가로열쇠)

- ① 나라를 세우는 데 왕을 도와 공이 많았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 ②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맷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
- ③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전세계 약2만5천여종이 있음. 전체가 일반적으로 가늘고 길며 원통 모양임.
- ④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한 곡.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와 욕심 많은 늘부 형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판소리.
- ⑤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복리 기여, 기상기후산업의 증진 등을 위해 기상업무를 관광하고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세로열쇠)

- ①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
- ② 4연 4구로 된 고대가요. 공후(箜篌)를 타며 노래로 불려져 '공후인(箜篌引)'이라는 악곡(樂曲)의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음.
- ③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 ④ 갑자기 세계 쏟아지다가 그치는 비. 황순원의 소설로도 유명함.
- ⑤ 어떠한 사물(事物)에 대(對)한 특별(特別)한 관심(關心)을 기울이는 감정(感情).

● 9월호 날말퍼즐 정답

로	팜	백	로
코	스	모	스
쿨		데	제
		이	화
자	명	고	보
			유
이	합	집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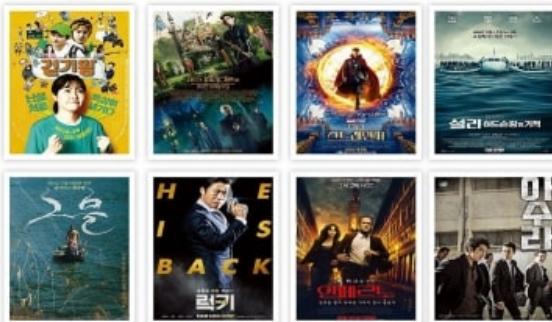
행복 김제! 문화·정보마당

10월 문화공연



- 단야별곡 2016.10.11(화) 19:30
 - 재즈싱어 안수지 2016.10.26(수) 19:30
 - 마당을 나온 암탉 2016.10.15(토) 14:00
 - 문의 : 김제문화예술회관 ☎063) 540-4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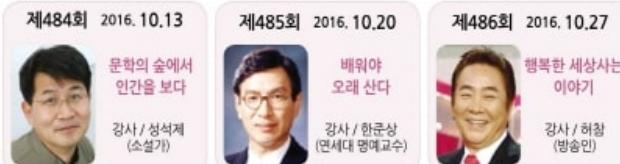
10월중 지평선시네마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문의처 : 지평선시네마 ☎ 547-1501, 1502,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540-3224, 3242

10월중 지평선아카데미 강연

- ◆ 테마 : 알알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물들다!
◆ 시간 : 매주 목요일 15:00~17:00 ◆ 장소 : 김제시청 대강당



*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인재양성과 (☎ 540-3822)로 문의 바랍니다.



9월중 김제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

기탁자	성명(대표자)	기탁금액
김제농고한마음회	채동수	1,000천원
김제시 수의사회	김낙기	1,000천원
김제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박치원	5,000천원
㈜호蹂	박강현	25,000천원
CMS 후원(양문업외 616건)		6,247천원
현재 장학금 기금 조성액 : 290억원		

♥ 김제사랑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제사람장학금 후원관련 문의 김제시 인재양성과 ☎ 063)540-3864



2016년도 독감예방접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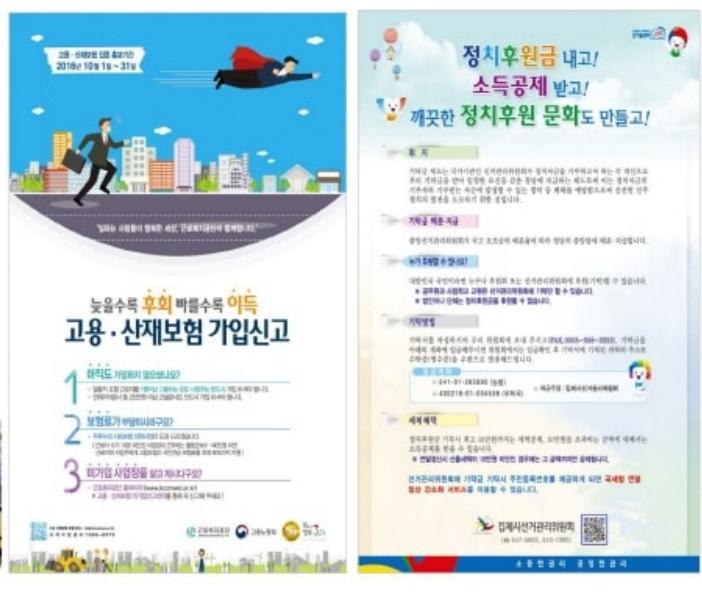
- ▶ 위탁의료기관 무료예방접종 안내(만65세이상)
 - 접종기간 : '16. 10. 4. ~ 11. 18.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37개소
 - 접종대상 : 1951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내과(10)	김기범내과, 김제고려내과 김인재내과 김한식내과, 나방주내과, 밀음내과, 유운용내과 친좋은내과, 한솔내과, 성모내과의원
외과(4)	고려신경외과, 서울정형외과, 김제장외과 이명철정형외과
의원(8)	김제의원, 김태형신경과, 건강제일의원, 원평연합의원, 제일신경정신과의원, 주사랑의원, 한양의원, 현대의원
가정의학과(3)	서울가정의학과, 튼튼가정의학과, 푸른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1)	하나이비인후과
소아과등(5)	김종범소아과, 조용거소아과, 미래소아청소년과, 한사랑산부인과, 미래와여성산부인과
병원(3)	김제우석병원, 동아병원, 신세계병원

▶ 보리스 보리노프(리구스) 드라마를 살펴보자

무료접종	유료접종(7,500원)
접종기간 : 10. 10.~10. 14.(5일간)	10. 17(월) 요촌동
접종대상 : 결혼이민자, 장애인(1~3급),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65세이상 만성질환자등	10. 18(화) 신풍동
	10. 19(수) 검산동
	10. 20(목) 고월동
	10. 21(금) 백산면

- 접종기간 : 10. 10. ~ 약품소진시까지
 - 접종시간 : 오전9시 ~ 오후4시 (접심시간 12:00 ~ 13:00)
 - 유료접종 : 36개월 ~ 64세 김제시 주민등록거주자에 한함.
※ 문의전화 : 김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540-1348, 1396



소식지 배부에 힘써주시는 이·통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주요 의정소식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제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 의회 구현에 최선!

제7대 김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에 재선의 나병문 의원과 부의장에 재선의 김복남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신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나병문 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회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 의회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이다.”라는 신념으로 어느 지방의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다양한 계층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설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의 특성상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모아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는 등 오직 시민 행복만을 위해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봉사하면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통해 김제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후반기 김제시의회는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 겸손하고 시민을 섬기는 의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제시의회, 추석 명절 군·경 장병 등 위문품 전달

김제시의회 군·경 장병 및 의무소방대원 위문 격려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김제 3대대, 김제경찰서 및 김제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랑의 경을 나누며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병문 의장과 김복남 부의장은 지역의 향토 방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군경 장병들과 의무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나병문 의장은 이날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음지에서 묵묵히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김제시의회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따뜻한 정과 희망이 넘치는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온정을 나누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